

SNS상의 범죄행위 설명에 있어 사회학습이론과 보완적 논의의 검증*

이 성 식**

요약 이 연구는 SNS상의 범죄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범죄학이론 중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주 요인인 차별접촉, 정의, 차별강화, 그리고 모방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사회학습이론의 보완적 논의로 사회학습요인들이 낮은 자기통제력, 하위문화 환경, 그리고 기회요인들과 함께 작용할 때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서울시 대학생 SNS이용자 486명을 조사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학습요인들 중 차별접촉과 차별강화의 영향력은 대체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반면 범위반에 호의적 정의와 모방의 경우는 어느 정도 SNS에서의 범죄행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상호작용효과와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학습요인들 중에서 범위반에 대한 정의는 그것을 허용하는 하위문화 환경의 조건에서 범죄에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제시했고, 차별강화로서 보상은 기회요인과 함께 상호작용효과를, 그리고 모방은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에게서 더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의 범죄, 사회학습이론, 낮은 자기통제력, 하위문화, 범지구회

An Empirical Test of Social Learning Theory and Complementary Approach in Explanation of University Students' Crimes in Social Network Services

Lee Seong-Sik

Abstract This study tests the effects of differential association, definitions, differential reinforcement and imitation from social learning theory in the explanation of university students' crimes in social network services. In addition, this study tests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social learning factors and other factors such as low self-control, subcultural environment, and crime opportunity for the integrated approach. Using data from 486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results show that both definition and imitation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crimes, even though differential association and differential reinforcement factors have no significant influences on crimes in social network services. Results also reveal that there ar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definition and subcultural environment, which means that definition has a strong effect on crimes in high subcultural environment.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reinforcement has also a strong effect on crimes in high crime opportunity and that interaction effect between imitation and low self-control is significant, which means that imitation has a strong effect on crimes in low self-control students.

Keywords: crime in social network services, social learning theory, Low self-control, subculture, crime opportunity

2015년 10월 5일 접수, 2015년 10월 6일 심사, 2015년 12월 13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A5A2A01011089)

** 숭실대학교 교수(lss824@ssu.ac.kr)

I. 서론

인터넷에서의 사이버범죄가 최근 범죄학 분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 SNS로 불리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상에서의 범죄도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SNS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관계를 구축하고 소통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도 많지만(김대호 외, 2012), 언어폭력, 집단괴롭힘, 사생활침해, 해킹, 사기, 저작권침해 등의 범죄의 문제도 등장한다(윤해성 외, 2013; 이성식, 2013).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려는 연구는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부족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SNS상의 범죄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범죄학이론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의 하나인 Akers(1985)의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그 설명력을 검증하려고 한다. 사회학습이론은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범죄를 학습하는 것을 범죄행위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SNS는 인터넷환경이면서도 가까운 친지들과 혹은 확대된 네트워크속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위반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터넷 사이버범죄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회학습요인들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의 중요성이 검증되어 왔기 때문에(이성식, 2011a), 사회학습이론만으로는 그 설명이 충분치 못할 수 있다. 범죄의 원인을 주위 사람의 관계와 같은 미시적 환경이외에 개인성향요인이나 보다 거시적 환경요인, 그리고 상황적 기회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사회학습이론에서 강조하는 요인들은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 사회환경요인이라는 점에서 이 이론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안정적 성향요인이외에 보다 거시적인 환경요인, 그리고 상황기회요인 등이 함께 고려될 때 그 설명력은 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사회학습요인들과 아울러 기존 사이버범죄 연구에서 강조되어 왔던 낮은 자기통제력(Buzzle, et al., 2006; Malin, et al., 2009; 이성식, 2010), 거시적 하위문화환경(이성식, 2012; 2013), 그리고 범죄기회요인(이성식, 2010; 2014)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그 설명력을 검증하고, 더 나아가 사회학습요인들은 그러한 여러 요인들과 함께 작용할 때 더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통합적이고도 보완적 주장을 검증해 보기로 한다.

이처럼 이 연구는 새로운 주제로 SNS상에서의 범죄행위를 설명함에 있어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의 설명력을 검증하고 아울러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개인성향요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 거시적 하위문화 환경, 그리고 기회요인들을 통해 그 이론을 보완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한 후 서울시 재학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II. 이론적 논의

1. 사회학습이론과 사이버범죄행위

사회학습이론은 비행과 범죄에 관한 대표적인 사회학이론으로 Akers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 이론은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을 보다 발전시키고 변형한 것으로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등 사회환경을 통해 범죄를 학습한다고 본다. Akers(1985)는 Sutherland의 차별접촉 개념을 유지하면서 행동주의 측면에서 차별강화 등의 개념을 통해 그것의 학습 기제에 대한 설명으로 보완, 수정한 이론을 제시했다. 즉 부모나 친구 등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범위반에 대한 정의나 태도를 학습하고 그것이 범죄의 주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아울러 주위 사람들이 행동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 강화를 제공한다고 보아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범죄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네 가지 개념을 구성하였는

데, 차별접촉, 정의, 차별강화, 모방이 그것이다.

차별접촉은 사회학습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상호작용하는 주위의 주요 사람중 범죄에 우호적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청소년의 경우 비행친구와의 우선성, 빈도, 기간, 강도가 높을수록 비행을 더 저지른다고 본다. 정의는 범죄행위에 대해 갖는 태도로서 그들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법 위반에 부정적인 정의에 비해서 친범죄적 정의나 태도를 형성할수록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차별강화는 범죄로부터 실제 혹은 지각된 결과로서 보상과 아울러 처벌 혹은 비용을 말하는데, 보상이 높을수록 그리고 비용이 낮을수록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마지막으로 모방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관찰한 후 그들이 경험했던 강화를 기초로 하여 모델링하는 것으로 그것을 모방하거나 유사하게 행동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사회학습이론의 주장들이 경험적으로 지지를 받아 왔는데(Krohn, et al., 1985; Akers, et al., 1996; Akers, et al., 2006), 그러한 주장들은 국내에서도 검증되어 왔다(황성현, 2007; 2008). 그 중에서도 비행친구 혹은 위반자와의 차별접촉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가장 강력한 원인의 하나로 평가되어 왔는데(Matsueda, 1982; Warr, et al., 2001; Warr, 2002), 더구나 사회학습이론자들은 다른 이론들의 요인들(예로 낮은 자기통제력이나 사회유대, 긴장요인들)의 영향력을 매개하며 그 요인들보다도 설명력이 크다는 것이 검증되어 왔다(전영실, 2003; 김상원, 2007). 즉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이나 부모와 유대 등 사회유대가 낮은 청소년, 일상에서 부모와의 갈등이나 학업부적응 등 긴장을 겪는 청소년도 결국은 비행친구를 사귀게 됨으로 해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사회학습이론은 그 주요 요인들이 높은 설명력을 갖고 여러 다른 이론의 요인들의 영향을 매개하는 궁극적 요인이라는 점 이외에 여러 면에서 유용하다. 차별접촉이론에 따르면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정의에

의해 매개되어 정의만이 최종적 변수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이 직접적이라는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사회학습이론은 차별접촉과 정의의 직접적 영향력을 모두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유용하다. 또한 그동안 차별접촉이론과는 비교되어 왔던 사회통제이론과는 그 근원과 주장이 달라 논쟁이 있었지만(Matsueda, 1982), 사회학습이론은 그것을 넘어서 통합적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뛰어난 이론으로 평가받는다. 예를 들어 그 주요 요인인 차별강화는 범죄로부터 얻는 보상 이외에 그로부터 결과될 손실과 비용을 강조하는 요인으로, 이는 합리적 선택이론 뿐만 아니라 손실의 측면에서 보면 범죄를 통제하는 사회유대와 손실의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통제이론의 요인과의 차이도 크지 않은데 그 개념을 사용하는 사회학습이론은 차별접촉이론 이외에 사회통제이론의 논의를 포괄하는 통합적 논의로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사회학습이론은 모방의 영향력을 강조함으로써 차별동일시이론(Glaser, 1956)의 논의를 포함하기도 한다.

사회학습이론들의 요인들은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적용되어 왔다. 그동안의 사이버범죄 연구는 많지는 않았지만 초기 연구로 Skinner와 Fream(1997)은 인터넷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있어 사회학습이론에서의 요인들을 적용했고, 차별접촉, 정의, 차별강화, 모방 중 비록 차별강화나 모방의 영향력은 낮았지만 차별접촉과 불법사용에 대해 갖는 친범죄적 정의와 태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했다. 이후의 연구에서도 사회학습이론의 요인들은 여러 사이버범죄 행위 중 주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외에 음악복제 등 저작권침해행위에 적용되어 왔는데 국내의 연구에서 그 요인들은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Higgins, et al., 2004; Higgins, et al., 2006; 이성식, 2011b). 국내 연구에서는 사이버몰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학습이론자들이외에 여러 요인들을 적용해 왔는데 비행

친구나 범위반의 정의나 태도의 영향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제시하여(이성식, 2006; 김정은, 2013; 남상인 외, 2013) 사회학습이론이 지지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인터넷공간에서의 사이버범죄행위에 적용한 연구는 아직은 미진하여 그 검증이 충분치 못하다 할 수 있다.

더구나 SNS환경에서의 범죄는 확대된 네트워크에서 서로 모르는 익명의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서로 아는 관계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 사이버범죄의 경우보다도 현실기반의 기존 범죄이론들의 적용 가능성이 높으며 그 주요 이론의 하나인 사회학습이론의 설명력은 높을 것이다. 실제로 윤해성 외(2013)의 SNS 이용상의 범죄연구에서는 다른 이론의 요인들보다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같은 사회학습요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임을 제시했고, 이성식과 전신현(2015)의 스마트폰 이용의 사이버불링 연구에서는 문자, 인터넷접속, 그리고 SNS경우를 비교했는데 SNS에서의 사이버불링에 있어 차별접촉의 영향력은 매우 높다는 것을 제시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차별접촉이외의 사회학습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않았지만 차별접촉으로 인해 그에 따른 정의의 학습이나 모방의 영향력 등도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학습요인들의 다른 주요 요인들과의 보완적 논의

사회학습이론은 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행위자의 주위환경으로부터의 범죄학습 등의 미시적 환경요인을 제시하지만 그러한 미시적 사회환경이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는 필요충분적 설명의 논의에서 볼 때 다른 설명요인들의 보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범죄행위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미시적 환경요인 이외에 개인의 안정적 성향, 거시적 환경, 그리고 범죄를 손쉽게 저지를 수 있는 기회상황요인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회학습요인과 그러

한 요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를 다룬 보완적 논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낮은 자기통제력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개인성향은 모든 유형의 범죄를 잘 설명한다고 주장되었듯이(Gottfredson, et al., 1990),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그것이 인터넷에서의 범죄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도 주목받아 왔다(Buzzle, et al., 2006; Malin, et al., 2009; 이성식, 2010). 즉 자기통제력이 낮은 충동적인 사람들은 익명의 사이버공간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 이처럼 인터넷에서의 범죄의 설명에 있어서 사회학습환경도 중요하지만 어려서 형성된 개인성향이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본다면, 그들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설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에서의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같은 사회학습요인들과 낮은 자기통제력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언급한 대표적 학자는 Wright, et al.(1999)로, 낮은 자기통제력의 사람이 비행친구와 사귄 때 비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회증진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choepfer, et al.(2006)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도덕적 태도를 갖는 경우는 범죄 가능성이 낮지만 그렇지 못한 도덕적 태도가 낮고 친범죄가치를 갖는 경우 범죄를 더 저지른다는 결과를 제시했고, 그러한 주장은 이후의 연구(Svensson, et al., 2010)에서도 지지된다. 그러한 연구들은 인터넷범죄연구에서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Higgins, et al.(2007)은 청소년들의 해적판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연구에서 비행친구와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한 호의적 태도와 낮은 자기통제력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갖는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아울러 Hinduja, et al.(2008)은 음악복제연구에서 사회학습요인들과 낮은 자기통제력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봤는데, 낮은 자기통제력은 비행친구와의 차별

접촉 및 차별강화와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갖는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즉 낮은 자기통제력의 아이들이 주위에 음악복제를 하는 친구와 사귄 때 혹은 음악복제로 많은 보상이 있고 비용은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 음악복제의 침해행위를 더 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한 상호작용효과의 논의는 최근의 국내외 연구(이성식, 2011b; Holt, et al., 2012)에서도 지된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볼 때 인터넷에서의 범죄행위를 설명함에 있어 사회학습요인들은 낮은 자기통제력의 개인성향요인들과 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 요인들간에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거시적 범죄문화

개인의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같은 미시적 환경이외에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인터넷공간에 친법적 하위문화의 정도가 얼마인가 하는 거시적 환경요인은 범죄행위를 설명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Tompsen, 1996). 거시환경요인이라 개인이 거주하거나 몸담고 있는 지역 혹은 더 큰 사회맥락적 환경으로 거주지역 혹은 사회단위의 통합정도나 문화가 그에 해당된다. 그동안 범죄연구에서는 사회해체이론에서 강조한 지역구조적 특성(지역의 경제수준, 이혼율, 이동율 등)과 그 이후 발전된 논의에서 집합효율성과 같은 요인이 주목을 받아 왔지만(Sampson, et al., 1997), 실제로 인터넷이용공간에서는 집합효율성과 같은 통제적 요인이외에 범죄행위를 유발하고 학습할 수 있는 거시환경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논의가 있다(이성식, 2012). 예를 들어 이성식(2012)의 인터넷에서의 악성댓글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이용사이트의 환경에 주목하면서 집합효율성 개념보다도 악성댓글이 허용되는 하위문화환경이 더 큰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거시적 환경요인이 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익명의 그리고 더 확대된 네트워크

에서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간에 다양한 가치가 혼재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범위반의 하위문화의 존재 가능성이 높는데, 그것은 개인의 범죄행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거시적 하위문화 환경요인은 사회학습요인들과 함께 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의 논의에서 미시적 사회학습요인들과 거시적 하위문화요인들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논의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위반자와의 차별접촉이나 친범죄적 정의와 같은 사회학습요인들은 그러한 하위문화환경에서 더 크게 범죄의 설명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위반자와 차별접촉하거나 범위반 태도를 갖는 사람들도 범위반을 허용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기 쉽지 않지만 범위반이 허용되는 하위문화가 존재하는 사이트나 그러한 SNS에서는 더 더욱 어려움없이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즉 사회학습요인들은 거시적 하위문화환경에서 더 작용할 것이며, 그들간에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3) 범죄기회

기존의 주요 범죄이론들이 주로 범죄자 개인특성이나 환경을 강조하는 논의들이었다면, 이후에는 범죄자의 특성보다는 범죄발생의 상황이나 기회여건에 주목하는 논의가 등장했다. 고전주의 학파에 근거한 이들 논의는 범죄발생의 기회요인을 중시하는데, 예를 들어 생활양식이론(Hindelang, et al., 1978)에서는 범죄위험의 노출이 범죄발생의 원인이라고 보았고, 일상행위이론(Cohen, et al., 1979; Meier, et al., 1993)에서는 범죄가 일어나기 위해 매력적 대상이 있고 범죄를 저지할 감시의 부재 등 범죄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 논의는 인터넷범죄연구에도 적용되어 왔는데, Holt, et al.(2009)의 온라인괴롭힘연구에서는 채팅방에 많이 방문할수록, 그리고 사회적 감시가 부재할수록 괴롭힘의 피해를, Macum, et al.(2010)은

채팅방 방문의 범죄위험에의 노출과 개인정보공개수준의 대상의 매력에 높을수록 사이버성폭력 피해를, 그리고 Reyns, et al.(2011)은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과 만날수록 그리고 사회적 감시가 낮을수록 사이버스토킹 피해를 더 당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기존 연구는 주로 범죄피해를 중심으로 범죄기회요인을 다뤄왔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범죄기회가 많고 수월할수록 범죄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손쉽게 한 번의 클릭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우연한 기회와 감시의 부재 등 범죄기회는 많게 되고 이는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되는데(이성식, 2014), 그러한 점에서 주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회학습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봄에 있어서도 범죄기회요인은 함께 고려되어야 할 또 다른 요인이 된다. 즉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회학습요인과 범죄기회도 범죄를 설명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 불법적 사회학습의 환경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적 기회여건이 갖추어질 때 더욱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비행친구와의 차별접촉과 기회요인은 상호작용효과를 갖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듯이(Haynie, et al., 2005), 차별접촉과 같은 사회학습요인은 기회요인과 통합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이 입장에서 본다면 차별접촉이외에 여러 사회학습요인들도 범죄기회와 통합될 때 인터넷범죄에 대한 설명력은 더욱 클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Ⅲ. 연구가설과 방법

1. 연구가설

이 연구는 SNS상의 범죄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범죄학이론 중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사

회학습요인들, 즉 차별접촉, 정의, 차별강화, 그리고 모방의 영향력을 살펴보려고 한다. 여기서는 사회학습이론의 논의에 따라 SNS상에서 범위반자와 더 접촉할수록, 범위반에 대한 정의를 학습할수록, 범위반에 보상과 강화가 높고 비용이 낮을수록, 그리고 범위반자를 모방할수록 범죄를 더 저지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1: SNS상에서 범위반자와 접촉할수록 범죄를 더 저지를 것이다

가설 1-2: SNS상에서의 범위반에 대한 정의를 학습할수록 범죄를 더 저지를 것이다

가설 1-3: SNS상에서 범위반에 보상이 높고 비용이 낮을수록 범죄를 더 저지를 것이다

가설 1-4: SNS상에서 범위반자를 모방할수록 범죄를 더 저지를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사회학습요인만으로는 SNS상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와 같은 주위 사람들과의 미시적 사회학습 환경요인들이외에 개인의 성향요인으로서 낮은 자기통제력, 거시적인 환경요인으로 하위문화환경, 그리고 기회요인으로 범죄기회를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그리고 사회학습이론의 보완적인 논의를 위해 위의 사회학습요인들이 낮은 자기통제력, 하위문화환경, 그리고 기회요인들과 함께 작용할 때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검증하려고 하며 사회학습요인들이 그들 요인들과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따라서 앞서 논의에 근거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2-1: 사회학습요인들(차별접촉, 정의, 차별강화, 모방)은 SNS상의 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낮은 자기통제력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설 2-2: 사회학습요인들(차별접촉, 정의, 차별강화, 모방)은 SNS상의 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하위문화환경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설 2-3: 사회학습요인들(차별접촉, 정의, 차별강화, 모방)은 SNS상의 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범죄기회와의 상호작용효과가 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12년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시점인 2012년의 SNS 이용의 경우 아직 중고등 청소년의 이용률은 적고 상대적으로 청년층이나 성인의 이용률이 높는데 그러한 점에서 여기서는 성인보다는 조사가 용이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로 하며, 서울시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한강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지역별로 두 개씩의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강북 동쪽의 K대, S대, 서쪽의 Y대, H대, 강남 동쪽의 H대, K대, 서쪽의 S대, S대 등 총 8개의 학교를 선정했으며, 각 학교에서는 자연/이공계와 인문사회/경상계 학생이 절반씩 표집되도록 했다. 조사는 2012년 6월25일부터 7월 9일까지 각 학교 100여명씩 총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불성실한 응답 38부를 제외한 762부가 사용되었다. 그 중 SNS사용자는 486명으로 응답자중 63.7%를 차지했는데 여기서는 이들 대상자를 최종 분석하기로 하며, 조사당시 주 사용 SNS는 페이스북 429명(88.3%)과 트위터 43명(8.8%), 기타 14명(2.9%)로 조사되었다.

2) 측정

(1)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주요 독립변수들로 사회학습요인들은

기존의 사회학습요인들의 측정에 의거하여(Akers, 1985; 황성현, 2008), 우선 범위반자와의 차별접촉은 “SNS상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 중 법을 위반한 사람이 있다”의 하나의 문항을 사용하기로 하는데 이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범위반의 정의는 “SNS상에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괜찮다”의 하나의 질문에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차별강화를 위해서는 SNS상에서 범위반으로부터 얻는 보상과 비용으로 나누어 측정하기로 하며, 이에 세 문항씩 질문하였는데, 보상으로는 “SNS상에서 범위반으로 손해보는 것보다 얻는게 더 많다”, “SNS상에서 범위반으로 주위의 반응이 더 좋다”, “SNS상에서 법을 위반한다면 재미나 스릴이 있을 것이다”(alpha=.892)를, 비용으로는 “SNS상에서 법을 위반한다면 주위로부터 창피할 것이다”, “SNS상에서 법을 위반한다면 주위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다”, “SNS상에서 법을 위반한다면 주위 사람의 관계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alpha=.902)를 질문하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모방은 “SNS상에서 범위반과 관련된 것을 배운다”, “SNS상에서 범위반을 모방하게 된다”, “SNS상에서 내가 닮고 싶은 사람 중 범위반을 했던 사람이 있다”의 세 문항을 사용하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827).

본 연구에서 사회학습요인들과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는 요인으로 사용할 낮은 자기통제력은 기존의 연구에 의거하여(Grasmick, et al., 1993), 충동성, 위험추구성, 단순작업추구성, 활동성, 이기성, 화기질 등 여섯 특성에 대해 두 문항씩의 질문을 하였는데, 예컨대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와 같은 총 열 두개의 질문에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837).

하위문화환경은 이용하는 SNS에서 범위반을 허용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는데(이성식, 2012), “SNS상

에서 범위반은 흔한 일이다”, “SNS상에서 범위반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SNS상에서 범위반 하는 사람을 자주 보게 된다” 등의 세 문항을 질문하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838).

범죄기회는 기존 범죄피해요인으로 범죄위험노출, 매력적 대상, 감시의 부재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 범죄기회의 인식을 중심으로 측정했으며(이성식, 2014) 그 외에 온라인상에서의 범죄의 용이성과 익명성 등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여, “SNS상에서 법을 위반할 기회가 많은 편이다”, “SNS상에서 범위반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다”, “SNS상에서 범위반을 할 때 나를 드러내지 않고 숨길 수 있다”의 세 문항을 질문하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886).

(2) 종속변수

종속변수로 SNS상의 범죄행위는 1) 단순욕설, 2) 사이버폭력(명예훼손/비방/스토킹) 3) 성폭력(성희롱/성매매제외/음란물),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침해 5) 해킹/바이러스/스팸메일, 6) 사기/절도, 7) 저작권침해 등 일곱 개의 항목에서 지난 1년 동안의 SNS

상에서의 경험 횟수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때 각 문항에서 원래대로의 개방형 질문에서의 횟수를 합산할 경우 빈도가 많은 일부 불법행동 문항의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고, 또 각 문항에서 ‘없다’와 ‘있다’만을 고려할 경우 그 합산값은 불법행동 빈도보다는 다양성을 위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일곱 개 문항에서의 횟수는 ‘없다’, ‘1회’, ‘2-3회’, ‘4-9회’, ‘10회 이상’으로 다시 나누고 0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고, 최종적으로 이들 문항을 합산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통제변수로 성은 여자(=0)와 남자(=1)를, 연령은 태어난 연도를 묻고 연령으로 재부호화를 하였다.

IV. 분석결과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할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자 통제변수로 사용할 성

〈표 1〉 주요 요인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결과

		명	%	평균	표준편차	범위
성	남성	274	56.4			
	여성	212	43.6			
연령				21.745	2.324	18-28
차별접촉				2.012	.876	1-5
정의				3.635	1.098	1-5
보상				6.060	2.289	3-15
비용				6.435	2.216	3-15
모방				5.925	2.159	3-15
낮은자기통제력				33.337	6.846	12-60
하위문화				6.415	2.301	3-15
기회				7.187	2.642	3-15
SNS범죄행위				.534	1.659	0-17

의 분포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은 274명(56.4%), 여성은 212명(43.6%)으로 남성이 다소 많았다. 연령은 18세부터 28세까지의 분포에서 평균연령은 21.74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학습요인들로 위반자와의 차별접촉은 1-5범위에서 평균값이 2.012로 나타났으며, 위반에 대한 호의적인 정의는 1-5범위에서 3.635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SNS에서의 범위반에 부정적이지는 않고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차별강화에서 보상은 3-15범위에서 평균값이 16.060으로 그 점수는 낮은 편이었으며, 비용은 3-15범위에서 평균값이 6.435로 보상보다는 높았지만 낮은 편이었고, 위반의 모방의 경우도 3-15범위에서 평균값이 5.925로 그 점수가 낮았다. 개인성향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은 12-60범위에서 평균값이 33.337로 그 점수가 낮았고, 이용하는 SNS에서의 위반에 허용적인 하위문화는 3-15범위에서 6.415로 낮았다. 또한 범죄기회의 인식에 있어서 3-15범위에서 평균값이 7.187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로 사용할 SNS상의 범죄행위는 0-17범위에서 평균값이 .534로 그 정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가설 1-1부터 가설 1-4를 검증함에 있어 우선 사회학습요인들의 영향력을 알기 위한 다중회귀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된다. 그 결과를 보면 차별접촉과 차별강화로서 보상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반면 범위반에 호의적 정의와 모방의 경우는 각각 $p < .05$ 수준에서 SNS에서의 범죄행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SNS상의 범위반에 호의적 정의를 가질수록 그리고 범위반자를 관찰하고 모방할수록 SNS상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차별강화의 비용의 영향력은 비록 다소 낮기는 했지만 $p < .10$ 수준에서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사회학습요인들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보면 모방, 정의, 비용순으로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했다. 통제변수로 남성과 연령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사회학습요인들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지만 전체 설명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체로 사회학습이론을 지지하는 것을 제시했다.

<표 3>은 본 연구에서의 가설 2-1부터 가설 2-3

<표 2> 사회학습요인들의 SNS범죄행위에 미치는 영향의 다중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SNS범죄행위	
	b	β
차별접촉	.082	.043
정의	.141*	.129
보상	.093	.079
비용	-.090#	-.117
모방	.133*	.169
통제변수		
남성	.214	.063
연령	-.007	-.009
R제곱	.073	
F값	4.982***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까지의 가설의 검증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첫 번째 분석에서는 사회학습요인들과 낮은 자기통제력과의 상호작용결과를 제시하는데, 여러 상호작용효과 중에서 다른 사회학습요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모방과 낮은 자기통제력간의 상호작용효과가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방의 영향력은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 결과에서 사회학습요인들의 주효과를 보면 모방은 정(+)적으로, 비용은 부(-)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정의와 보상은 $p < .10$ 수준에서 비록 다소 작았지만 정(+)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고 낮은 자기통제력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두 번째 분석에서는 사회학습요인들과 하위문화환경과의 상호작용효과의 결과를 제시하는데, 여러 상호작용효과 중에서 위반에 호의적인 정의와 하위문화간의 상호작용효과가 $p < .05$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범위반에 호의적인 정의를 갖는 사람은 하위문화환경에서 더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연구결과에서는 또한 보상과 하위문화간에서도 $p < .10$ 수준에서 다소 약하지만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표 3〉 사회학습요인들의 SNS범죄행위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의 다중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SNS범죄행위					
	(1)		(2)		(3)	
독립변수	b	β	b	β	b	β
주효과						
차별접촉	.072	.038	.095	.050	.131	.069
정의	.127#	.103	.201**	.183	.143*	.130
보상	.106#	.106	.058	.080	.023	.031
비용	-.098*	-.127	-.090#	-.107	-.081#	-.106
모방	.126*	.160	.120#	.103	.134*	.170
낮은자기통제력	.014	.058				
하위문화			.058	.080		
기회					.066#	.103
상호작용효과						
차별접촉	.018	.071	-.023	-.031	-.082	-.101
정의	-.000	-.001	.068*	.113	.032	.057
보상	.012	.097	.044#	.104	.058*	.189
비용	.004	.036	-.028	-.091	.006	.023
모방	.021*	.190	.004	.011	-.011	-.039
통제변수						
남성	.223	.066	.224	.066	.200	.059
연령	-.003	-.005	-.013	-.018	-.014	-.020
R제곱	.090		.098		.107	
F값	3.292***		3.616***		4.022***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주효과를 보면 정의는 $p < .01$ 수준에서, 모방과 비용은 $p < .10$ 수준에서 다소 낮았지만 독립적으로 영향력을 가졌고, 사회학습요인 중 보상과 하위문화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울러 세 번째 분석에서는 사회학습요인들과 기회요인과의 상호작용결과를 제시하는데, 여러 상호작용효과 중에서 차별강화로서 보상과 기회요인간의 상호작용효과가 $p < .05$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이버범죄로 보상이 있을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기회가 많을 때 더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 결과에서는 주효과로 모방과 정의가 독립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정(+)적으로, 비용은 $p < .10$ 수준에서 부(-)적인 영향력을 나타냈고 범죄기회의 주효과도 $p < .10$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다.

앞서 결과에서 사회학습요인들의 주효과는 세 분석에 따라 그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지만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 정의와 보상은 그 영향력이 기회요인이 추가되었을 때는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낮은 자기통제력의 추가시에는 정의의 영향력이 다소 낮았고 상대적으로 비용의 영향력이 높아졌으며 하위문화 추가시에는 정의의 영향력이 더 높아졌지만 모방의 영향력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사회학습요인들의 특성에 따라 개인성향 혹은 거시환경요인이 추가될 때 그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그러한 주효과의 변화는 크지 않고 미비했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으로 상호작용효과의 경우는 뚜렷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사회학습요인들 중에서 정의는 그것을 허용하는 하위문화환경의 조건에서, 차별강화로서 보상은 기회요인과 함께, 또한 모방은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에게서 더 영향력을 갖는 것을 제시했다.

V. 결론

이 연구는 대학생의 SNS상의 범죄행위를 설명하

기 위해 기존의 범죄학이론 중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사회학습요인들의 영향력을 다루었고, 차별접촉, 정의, 차별강화, 그리고 모방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사회학습이론의 보완적 논의로 사회학습요인들이 낮은 자기통제력, 하위문화환경, 그리고 기회요인들과 함께 작용할 때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그것을 검증하려고 한 점이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사회학습요인들 중 차별접촉과 차별강화의 영향력은 대체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반면 범위반에 호의적 정의와 모방의 경우는 어느 정도 SNS에서의 범죄행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을 제시했다. 오프라인 현실에서는 비행친구와의 차별접촉이 꾸준히 강력한 요인의 하나로 주목받아 왔음에도 이 연구에서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는 익명의 인터넷에서는 주위의 압력이나 영향보다도 개인의 평소 소신이나 가치, 태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논의(Matheson, et al., 1989; Joinson, 200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차별강화의 영향력은 낮았으나 인터넷에서는 모방에 의해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결과이다. 차별접촉이나 강화에 의해 정의가 형성되고 모방도 그러한 접촉과 강화요인에 의해 비롯된다는 점에서 보면 차별접촉이나 차별강화요인은 직접적으로보다는 정의나 모방에 의해 매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후 추가적 분석에서 보면 차별접촉과 차별강화 요인의 영향은 정의나 모방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요 관심으로 상호작용효과의 결과를 보면 사회학습요인들 중에서 범위반에 대한 정의는 그것을 허용하는 하위문화환경의 조건에서 범죄에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제시했고, 또한 차별강화로서 보상은 기회요인과 함께 상호작용효과를 갖는 것을 제시했으며, 모방은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에게서 더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보면 정의와 하위문화는 차별접촉이론의 전통을 함께하는 이론으로서 개인의

태도는 그것을 허용하는 거시적 환경에서 더욱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제시하며, 아울러 고전주의 학파에 기반을 두는 기회요인의 경우도 그와 유사한 이득, 보상이자 합리적 선택요인과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모방의 경우도 합리적이지 않고 충동적인 낮은 자기통제력의 사람들에게서 더 작용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사회학습요인들이 충분히 높은 설명력을 갖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SNS상의 범죄행위를 설명하는 유용한 요인들임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 본 연구의 예측대로 비록 여러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작용하지는 않았지만 일부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본 연구의 보완적 논의가 부분적으로는 지지되는 것을 나타냈다. 이는 SNS에서와 같은 인터넷범죄에서 어느 하나의 이론에 근거한 요인들만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하며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필요충분적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학습요인들과 개인성향, 거시환경, 기회요인의 타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의 발견은 SNS의 범죄설명을 위한 이론적 발전에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거시요인인 하위문화요인을 개인수준에서 측정했던 문제나 사회학습요인의 정의의 경우 하나의 문항만을 사용한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SNS서비스나 범죄행위 유형별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향후에는 보다 확대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SNS가 활성화하기 시작한 2012년 자료라는 점에서 물론 현 시점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최근 활성화되어 있는 현재 시의 적절한 분석을 위해서는 새로운 자료를 요한다. 또한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를 가지며 이제는 중고등학생의 SNS이용율이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청소년층 대상의 연구가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단순한 이론의 검증이외에

이론들의 다양한 통합이 시도되어 보다 적합한 설명과 검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김정은 (2013).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비행친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9(4): 133-159.
- 김대호·김성철·나은영·심용운·이상우·이재신·장병희·진달용·최선규·최준호 (2012).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상원 (2007). “아동과 청소년비행의 원인비교: 허위의 사회유대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8(2): 325-362.
- 남상인·권남희 (2013). “청소년 사이버불링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3): 23-43.
- 윤해성·박성훈 (2013). 「SNS에서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성식 (2006). “사이버언어폭력의 원인과 방지대책.” 「형사정책」, 18(2): 421-420.
- 이성식 (2010).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요인들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비행에의 영향 비교: 일반이론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21(1): 203-233.
- 이성식 (2011a). 「사이버범죄학: 원인, 유형, 대책」. 그린.
- 이성식 (2011b). “청소년의 온라인 저작물 불법다운로드 행위에 있어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회학습요인들의 영향 및 상호작용효과.” 「청소년학연구」, 18(10): 123-142.
- 이성식 (2012). “인터넷 약성댓글에 있어 낮은 자기통제력과 인터넷사이트 환경요인의 조건적 작용과 그 남녀 차이.” 「형사정책」, 24(3): 163-185.
- 이성식 (2013).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상에서의 불법행동과 그 원인으로 사회자본과 그 쟁점: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비교.” 「형사정책연구」, 24(2): 261-290.
- 이성식 (2014). “대학생의 사이버일탈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주요 네 이론에서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54: 145-168.

- 이성식·전신현 (2015). “대학생의 사이버불링 원인에 관한 연구: 스마트폰의 세 이용환경으로 문자, SNS, 인터넷접속의 비교.” 「형사정책연구」, 26(3): 187-207.
- 전영실 (2003). “성, 사회유대, 비행에 대한 연구: 가족적 요인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4(1): 313-347.
- 황성현 (2007). “한국과 미국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범죄학」, 1(1): 73-90
- 황성현 (2008). “한국과 미국 청소년들의 음주행위에 관한 비교 연구: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23: 5-29.
- Akers, R.L. (1985).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2nd. Belmont, CA: Wadsworth.
- Akers, R.L. & Lee, G. (1996). “A Longitudinal Test of Social Learning Theory: Adolescent Smoking.” *Journal of Drug Issues*, 26: 317-343.
- Akers, R.L. & Jensen, G.F. (2006). “The Empirical Status of Social Learning Theory of Crime and Deviance. In Taking Stock: The Status of Criminology Theory.” In F.T. Cullen et al. (eds.),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Becker, J.U. & Clement, M. (2006). “Dynamics of Illegal Participation in Peer-to-Peer Networks : Why do People illegally Share Media Files?” *Journal of Media Economics*, 19: 7-32.
- Bossler, A.M. & T.J. Holt. (2010). “The Effects of Self-Control on Victimization in the Cyberworl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 227-236.
- Buzzell, B., Foss, D. & Middleton, Z. (2006). “Explaining Use of Online Pornography: A Test of Self-Control Theory and Opportunities for Devian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and Popular Culture*, 13: 96-116.
- Cohen, L. &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ies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588-608.
- Glaser, D. (1956). “Criminal Theories and Behavioral Imag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1: 433-444.
- Gottfredson, M.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smick, H.G., Tittle, C.R., Burski, R.J. & Arneklev, B.K.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29.
- Higgins, G.E. & Makin, D.A. (2004). “Does Social Learning Theory condition the Effects of Low Self-Control on College Student’s Software Piracy?” *Journal of Economic Crime Management*, 2: 1-22.
- Higgins, G.E. & Wilson, A.L. (2006). “Low Self-Control, Moral Beliefs and Social Learning Theory in University Student’s Intentions to Pirate Software.” *Security Journal*, 19: 75-92.
- Higgins, G., Fell, B., & Wilson, A. (2007). “Low Self-Control and Social Learning in Understanding Student’s Intentions to Pirate Movie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5(3): 339-357.
- Hindelang, M.S., Gottfredson, M.R. & Garofalo, J. (1978). *Victims of Personal Crime*. Cambridge, MA: Ballinger.
- Hinduja, S. & Ingram, J. (2008). “Self-Control and Ethical Beliefs on the Social Learning of Intellectual Property Theft.” *Western Criminology Review*, 9(2): 52-72.
- Holt, T. & Bossler, A. (2009). “Examining the Applicability of Lifestyle-Routine Activities Theory for Cybercrime Victimization.” *Deviant Behavior*, 30: 1-25.
- Holt, T., Bossler, A. & May, D.C. (2012). “Low Self-control, Deviant Peer Associations and Juvenile Cyber Deviance.”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7(2): 378-395.
- Joinson, A.N. (2003). *Understanding the*

- Psychology of Internet Behavior*. Palgrave MacMillian.
- Krohn, M.D., Skinner, W.F., Massey, J.L. & Alers, R.L. (1985). "Social Learning Theory and Adolescent Cigarette Smoking: A Longitudinal Study." *Social Problem*, 32: 455-473.
- Marcum, C.D., G.E. Higgins, & M. L. Ricketts. (2010). "Potential Factors of Onlinge Victimization of Youth: An Examination of Adolescent Online Behaviors Utilizing Routine Activity Theory." *Deviant Behavior*, 31: 381-410.
- Malin, J. & Fowers, B. (2009). "Adolescent Self-Control and Music and Movie Pirac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5: 718-722.
- Matheson, K. & Zanna, M.P. (1989). "The Impact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on Self-awarenes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 221-33.
- Matsueda, R.L. (1982). "Testing Control Theory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A Causal Modeling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489-504
- McGloin, J.M. & Shermer, L.O. (2009). "Self-control and Deviant Peer Network Structur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6: 35-72.
- Meier, R.F. & Miethe, T.D. (1993). "Understanding Theories of Criminal Victimization." In A.J. Reiss & M. Tonry (eds.), *Crime and Justice*, Vol 15.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eyns, B.W., B. Henson & B.S. Fisher. (2011). "Being Pursued Online: Applying Cyber lifestyle-Routine Activities Theory to Cyberstalking Victimization."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8: 1149-1169.
- Sampson, R.J., Raundenbush, S. & Ear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918-924.
- Schoepfer, A. & Piquero, A.R. (2006). "Self-Control, Moral Beliefs, and Criminal Activity." *Deviant Behavior*, 27: 51-71.
- Skinner, B.F. & Fream, A.M. (1997). "A Social Learning Theory Analysis of Computer Crim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4: 495-518.
- Svensson, R., Pauwels, L., & Weerman, F. (2010). "Does the Effect of Self-Control on Adolescent Offending vary by Level of Moralit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7: 732-743.
- Thompson, P.A. (1996). "Whats fueling the Flames in Cyberspace? A Social Influence Model." In S. Lance, R. Jacobson, & S.B. Gibson(eds), *Communications and Cyberspace*. New Jersey: Hampton Press.
- War, M. & Stafford, M. (1991). "The Influence of Delinquent Peer: What They think or What They do?" *Criminology*, 29: 851-866.
- Warr, M (2002). *Companions in Crime: The Social Aspects of Criminal Condu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right, B.R., Capsi, A. & Silva, P.A. (1999). "Low Self-Control, Social Bonds, and Crime: Social Causation, Social Selection, or Both?" *Criminology*, 37: 479-514.